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ICOH Congress Dublin 2018

글 사업지원본부장 김훈철



국제산업보건학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ICOH)는 1900년대 초 스웨스 터널 공사 중에 발생한 산재사고 및 직업병을 예방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창립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최고의 국제학술단체다. ICOH 회원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전문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등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연구기관, 미국 직업환경의학회(ACOEM) 등으로 구성된다. 전 세계 2,000여 명의 개인과 기관이 가입된 단체로 사무국은 이탈리아 로마 산재예방보상공단(INAIL)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산업보건학회가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산업보건대회는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다. 제 32회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DUBLIN-IRELAND에서 2,2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산업보건단체에서 참석했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를 대표해 이세훈 서울지부장님과 내가 참석하게 됐다.

참고로 3년 전 열린 2015년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는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 : 세계를 하나로'를 모토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으며, 병행 행사로 우리 협회가 주관

하는 '제25회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도 진행된 바 있다.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보건 연구

아일랜드 수도는 더블린,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80%,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서쪽, 인구는 약 650만 명이며 언어는 아일랜드어(게일어)와 영어를 사용한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800년이나 받다가 독립한 나라, 인구의 4분의 1이나 감소한 무시무시한 감자 대기근을 이겨내고 유럽의 강국으로 급성장한 국가다. 훌륭한 브랜드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브랜드가 탄생한 나라의 가치를 높여 준다고 하는데, 아일랜드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드를 이야기하자면 단연코 기네스 맥주를 들 수 있다. 온갖 진기한 기록을 모아놓은 기네스북을 기네스사에서 발행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노벨문학상을 4명이나 배출한 나라답게 문화와 역사, 예술과 도시가 공존하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학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Occupational Health and Wellbeing: linking research to practice'로 196개의 세션, 포스터 700점 이상, 병렬 세션에서 852회의 학술 발표, 300시간 이상의 교육 콘텐츠 등이 발표됐다. 콘퍼런스 앱을 이용하여 참석자 개인이



학술대회 일정

2일차(4월 30일)

- 본회의**
 -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어젠다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동자 건강의 중요성
 - 치명적이고 중대한 사고와 질병이 없는 업무의 세계
- 세미나**
 - 아일랜드 병원의 웰빙 복지에 대한 전국 조사
 - 새로운 직업 건강관리의 도전과 도구로서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 근로자를 위해 직업 건강 인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교육 및 훈련의 역할
 - 산업보건 비상사태
 - 직업 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 단위 체계의 개발

3일차(5월 1일)

- 본회의**
 - 아일랜드 환경에서 직장 건강, 안전 및 웰빙을 연결
 - 직업상 심리적인 상태
- 총회**
 - 전체 근로자 건강 : 개념에서 현실로
- 인터뷰**
 - 일반 포스터 및 학생 포스터
- 글로벌 정책 포럼**
 - 직업 암 예방 : 글로벌 정책과 전략

4일차(5월 2일)

- 본회의**
 - 아일랜드 환경에서 직장 건강, 안전 및 웰빙을 연결
- 총회**
 - 유전자-환경 상호 작용 : 분자 역학 및 산업보건 독물학
- 세미나**
 - 신홍 감염의 직업 건강 측면 : 의료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스 발생
 - (SPI) 고대근무자와 운전자 사이의 수면 장애 예방
 - (SPI) 건강한 노화, 건강한 직장 : 가정 간호 인력에 대한 세계적인 시각

5일차(5월 3일)

- 회의**
 - 기후 변화가 직업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연구 증거 및 향후 조치
- 본회의**
 - 직업 건강과 환경 건강의 연결
- 세미나**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직업 의료 서비스의 질과 지배 구조
 - 직장 스트레스, 자본주의 및 심리 사회 안전성에 대한 아이디어
 - 현대 사회에서의 노동자 건강

6일차(5월 4일, 마지막 날)

- 본회의**
 - 이주, 노동 및 산업 안전 보건
 - 직업 건강이 공중 보건이 될 때 : 광부의 직업 성 폐 질환
- 세미나**
 - 직업 건강을 위한 국가 전략 개발 : 영국에서의 경험
 - 산업보건을 위한 소셜 전달 모델 : 의료 종사자 부족에 대응

듣고 싶은 프로그램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고 매일 업데이트하여 프로그램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단히 학회 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일

차(4월 29일) 오후에는 환영 리셉

션이 있었다. 참석자들과 소통

과 화합의 자리였으며 와인과

간단한 음식이 제공되었다.

처음 참석하는 자리여서 대

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생소하

였으나 우리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주관하는 한중일 산업보건집담회에서 만났던 일

부 참석자와는 안면이 있어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설레는 시간을 보냈다. 추후 28회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집담회에서 다시 만나기도 했다. 2일

차부터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진행됐으며 매일 본

회의와 세미나, 포럼, 총회 등이 열렸다.

모든 것이 영어로만 진행되어 많은 부분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여러 나라에서 산업보건과 관련된 연구와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나 또한 산업보건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이번 학회 세계 정책 포럼은 작업장 건강에 관한 더블린 의견으로 '작업장 암 및 기타 심각한 직업 건강 위험 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의 개발'이었으며 폐회식에서 서명됐고, 제출된 모든 초록은 직업 및 환경 의학 저널의 보충 자료로 발행됐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http://icoh2018.org/2018/>)되었으니 관심이 있는 이들은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3년 뒤 2021년 제33회 국제 산업보건대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

